

92. 9월 25일 9日帝 하시마탄광 희생자 유족회
 2. 日정부에 진상규명 배상등 요구

【金州】일제때 강제징용
 왜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
 마(端島) 미쓰비시 탄광에
 서 강제노역을 하다 숨진
 피해자 유족 50여명은 8일
 오후 2시 金北金州시西老
 松동 삼이다방에 모여 「일
 본 하시마 희생자 유족회」를
 결성하고 일본정부와 미쓰
 비시상사들에 사망 진상
 규명과 보상을 요구하는
 성명서를 채택했다.

유족들은 이날 『지난 42
 년 金北金堤에서 19세의
 나이로 징용당해 하시마에
 서 강제노역을 하다 숨진
 李琬玉씨의 조카 李福烈씨
 (49·전북산업대학교수)가 지
 난해 8월 21일 하시마탄광
 에서 5백여명의 한국인이
 강제노역을 하다 1백22명
 이 숨진 사실을 당시의 화
 장화가면부들을 통해 확인
 했다고 밝혔다.
 유족들은 『그후 일본 나
 가사키에 있는 재일조선인
 의 인권을 수호하는 모인
 들을 통해 사망자의 이름과

유족반환등을 요구했으나
 미쓰비시회사로부터 오는
 6월말까지 기다려 달라는
 회신을 받았을뿐」이라고
 말했다.